

문자 창제와 통치 철학

최영환
(경인교육대학교)

1. 문자 발달의 끝에 서서

문자의 역사는 나무 막대기 하나로 출입을 금지하거나, 선 하나로 동물 한 마리를 표시하는 등의 원시적인 문자 형태를 고려한다면 대략 2만 년이 넘는다고 한다. 어느 정도 문자의 형태를 갖춘 이집트의 상형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 중국의 갑골문자에서부터 지중해 여러 나라의 문자, 아메리카 문명의 문자, 동아시아의 문자를 비롯한 수많은 문자를 연구하다 보면, 문자가 일종의 발달 과정을 거쳐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흔히 문자는 표의문자(또는 사고 문자 thought writing)에서 표음문자로 발달했다고 한다. 아마도 표의성은 초기 단계에는 매우 유용한 형태였을 것이다. 사람의 수를 기록하고자 할 때 ‘사람’, ‘人’, ‘man’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처럼 그리고 그 옆에 //식으로 수를 표시하는 것이 편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연장선에 표의 문자가 있다.

그러나 인지가 발달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등장하고, 정보가 복잡해지면 그림 형태로는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방법을 찾게 된다. 그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개념이나 정보를 나타내는 음성을 그대로 문자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연장선에 표음문자(表音文字)가 있다. 사실 표의 문자 중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한자(漢字)도 현대에 들어서는 이른바 간체를 사용하면서 표음문자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남자들이 머리를 깎는 ‘이발(理髮)’에서 ‘髮’은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길다’는 뜻의 ‘장(長)과 ‘머리털’을 뜻하는 ‘삼(彡)이 합쳐지고 그 밑에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발(攴)’ 합쳐서 만든 글자인데, 간체에서는 머리터럭을 뜻하는 ‘발(髮)’이 복잡하니까 그 소리가 같은 ‘발(發)’의 간체자인 ‘발(发)’을 사용하도록 했다. 즉 발전(發展)과 이발(理髮)의 ‘발’이 서로 다른 뜻이지만 ‘발(发)로 표기하도록 하여 표의 문자로서의 특성을 버리고 표음문자의 특성을 모방한다.

이에 반하여 한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운 자질을 문자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자질 문자로서의 특성까지 담아 문자의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고도의 과학성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알파벳이라는 찬사를 듣는다. 한글의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한글의 제자 및 용자 원칙에 따르면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도 특별한 문제 없이 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한글의 표기력에 대해 “자운(字韻) 청탁을 구별할 수 있고, 악가(樂歌) 율려(律呂)가 고르고, 쓰는 데 부족한 바가 없어 어떤 경우에도 이르러 통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3. 성군(聖君)이 그리는 이상 국가(理想 國家)

세종은 30년이 넘는 통치 기간 내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정치의 핵심으로 생각했다. 백성들을 교화시켜 풍속을 안정시키면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백성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사실 세종은 맹자와 주자에서 이어지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나라, 높은 수준의 윤리를 실천하는 사회,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조선이라는 나라, 세종이라는 왕이 구상하는 이상 국가는 ‘인, 의, 예, 지’라는 인간 본성에서 ‘희노애락애오욕’이라는 정서가 제대로 발현되도록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동양에서는 소리가 어지러우면 풍속이 어지러워지고, 그로 인해 사람의 본성이 어지러워지고, 사회와 국가가 어지러워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바로잡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세종은 치세 동안 소리를 바로잡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그가 이상 국가를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세종의 치세에 소리를 바로잡는 일은 초기부터 박연을 통해 우리 음악을 정리하여 악기를 조율하고 악보를 편찬하며 궁중음악을 개편하고, 중국 음악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소리를 바로잡는 일에 힘을 썼다. 또한 우리의 말소리를 바로잡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제작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하여 이것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정(正)’하게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훈민정음은 흔히 생각하는 문자가 아니라 ‘바른 소리’이며, 이것의 목표는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중국의 한자음을 바로잡는 ‘동국정운(東國正韻)’을 편찬하면서 역시 ‘바르다’는 뜻의 ‘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바른 소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바른 소리’를 통한 이상 국가 실현의 의지는 동국정운의 서문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제작됨으로부터 만고(萬古)의 한 소리로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音)을 전하는 중심줄[樞紐]인지라. 청탁(淸濁)이 분별되매 천지의 도(道)가 정하여

지고, 사성(四聲)이 바로잡히매 사시(四時)의 운행이 순하게 되니, 진실로 조화(造化)를 경륜(經綸)하고 우주(宇宙)를 주름잡으며, 오묘한 뜻이 현관(玄關)4248)에 부합(符合)되고 신비한 기미(幾微)가 대자연의 소리에 통한 것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에 이르리요. 청탁(淸濁)이 돌고 구르며 자모(字母)가 서로 밀어 칠음(七音)과 12운율(韻律)과 84성조(聲調)가 가히 성악(聲樂)의 정도(正道)로 더불어 한 가지로 크게 화합하게 되었도다. 아아, 소리를 살피서 음(音)을 알고, 음(音)을 살피서 음악을 알며, 음악을 살피서 정치를 알게 되나니, 뒤에 보는 이들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 로다.”라는 말로 다시 한 번 드러난다.

4. 이상 실현을 위한 발걸음

이상 국가를 구현하려는 세종의 구상은 즉위 10년에 지방에서 일어난 하나의 패륜 사건을 접하면서 문제에 봉착한다. 평범한 백성이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을 접하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 세종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닌 패륜의 문제이고, ‘인, 의, 예, 지’ 모두가 파괴되는 현상에 직면한 것이다. 세종은 즉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삼강행실도’를 제작하게 하면서, 백성들이 한자로 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염려하여 이야기 내용을 그림으로 담도록 했다.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백성들을 교화하여 이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문자 창제에서 절정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문자는 지배 계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자를 통해 정보를 유지하고, 정보를 축적하고, 정보를 전달하면서 지배 계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일을 했다. 그런데 거의 600년 전에 이러한 문자의 역사에 반하는 충격적인 시도가 있었다. 한 국가의 왕이 지배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이익을 위해, 즉 모든 백성을 수준 높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문자를 창제하고 보급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조선은 귀족을 중심으로 이미 한자를 통한 정보의 소통 및 축적이 가능했고, 백성들은 그 한자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지배 계층은 집단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배 계층의 정점에 선 임금이 지배 계층의 이익을 넘어서서 모든 백성을 위한 일을 했다는 것은 현대적 민주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세종은 문자를 창제한 후, 이 문자로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정치적으로 용비어천가를 만들어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역사적 정통성과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을 밝힌다. 이는 지배 계층의 지배를 안정시키면서도 왕조

의 변혁과 이민족과의 대립에서 오는 백성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각용을 한다. 종교적으로는 피지배 계층의 종교인 불교를 제대로 알게 하고 백성들이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석가의 생애를 조망하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편찬하여 보급한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높은 수준의 종교와 윤리에 이를 수 있는 지적 기반을 갖게 된다. 또한 법률과 관련하여 각종 형옥의 일을 훈민정음으로 써서 알리고 처리하도록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한다. 훈민정음 서문에서도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여 공평한 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철학적으로는 사서(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게 하여 이해를 돕고 보급에 힘쓴다. 이러한 편찬 작업은 이미 의학, 농업, 국방, 예술, 윤리 등 여러 분야에서 한문으로 편찬한 책과 함께 이상 국가를 향한 발걸음이 되며, 세종 이후 임금들은 외국어 학습서 간행을 비롯하여 국가의 전체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훈민정음으로 간행하고, 이미 한문으로 간행된 책의 언해 작업을 통해 백성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종의 뜻을 이어간다.

5. 중세에 이룩한 지식 사회

훈민정음은 영리한 사람이라면 하루 아침에도 깨우칠 수 있을 만큼 쉬운 글자이다. 이렇게 쉬운 글자라면 하루 종일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백성들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한글을 깨우쳐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한글 창제 이후 조선 사회의 백성들은 이전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 한글을 아는 농민은 한글로 지은 ‘농가월령가’를 통해 농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 경제력을 높일 수 있었고, 한글로 번역된 의학 서적을 읽을 수 있어 집집마다 민간 의학 정보를 축적하고 전수할 수 있었다.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인간다운 도리와 사회의 조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억울함을 글로써 풀어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중세 시대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처럼 높은 수준의 민도를 가진 나라는 없었다.